

군중과
개인

MASS
AND INDIVIDUAL

가 이 아 나
매 스 게 임
아 카 이 브
T H E
A R C H I V E
O F T H E
G U Y A N E S E
M A S S
G A M E S

다이아나 유, 편의니스 스토어 판매대 (연작) 중 HI Ya, 2016.
디지털 프린트, 149.84 x 60.96 cm. © 다이아나 유.



Diana Yoo, Convenience Store Counters Series - HI Ya, 2016.
Digital colour print on matte vinyl, 149.84 x 60.96 cm. © Diana Yoo.



다이아나 유, 편의점 스토어 (부분), 2014-2016.
멀티미디어 설치. © 양철모.



222

Diana Yoo, *From a Convenience Store (Detail)*, 2014-2016.
Multimedia Installation. © Yang Chulmo.



223



다이어나 유 (현업, 캐나다)
다이어나 유는 사진, 설치, 뉴미디어, 퍼포먼스 작가이다. 캐나다의 웨스턴타로대학교 대학원과 오크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한 작가는 1, 2세대 한국계 캐나다 이민자의 정체성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이 최우를 통해 이민 2세대인 본인의 자전적인 기억,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재, 그리고 장소의 이음성 등에 대해 고민한다. 다이어나 유는 크롤러 갤러리(토론토), 존 B. 에어드 갤러리(토론토), 아트 랩 갤러리(현업), 피터버러 아트 갤러리(피터버러), 컨택 사진 페스티벌(토론토) 등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전시에 참여했다.

다이어나 유, 컨베니언스 스토어, 2014-2016. 멀티미디어 설치
다이어나 유, 컨베니언스 스토어 판매대 (연작), 2016. 디지털 인더 프린트
다이어나 유, 경계선 여행객, 2014. 단채널 비디오, 3 min 54 sec.

한국계 캐나다 이민 2세대인 다이어나 유는 설치 작품 「컨베니언스 스토어」와 사진 연작 「컨베니언스 스토어 판매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많은 한국계 북미 이주자들이 그러하듯 작가의 가족은 캐나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낯선에도 북한에도 친척이 있던 작가에게 있어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자신이 성장한 캐나다의 편의점에서 DMZ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작가는 「컨베니언스 스토어」에서 한국계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재현하고, 그 공간에 DMZ 영상을 함께 보여준다.

「컨베니언스 스토어 판매대」는 한국계 이민자들의 편의점에서 찍은 판매대 사진 연작이다. 북미에서 개성없이 대량생산된 값싼 상품들만 가득한 판매대 사진들은, 물질적 풍요로 대변되는 북미 사회에 동화되어 예쁘게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가의 시선을 보여준다. 본 전시에 선보이는 작가의 작업에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던 한국계 캐나다인이 전쟁에 대해, 그리고 이주함으로써 살아온 자신의 기억을 영어로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흐른다. 작가는 개인과 집단의 기억이 교차하고 한반도와 캐나다의 장소가 중첩되는 공간을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김성연)

Diana Yoo
(London, Canada)

Diana Yoo is a photography, installation, new media, and performance artist. She received her Masters of Fine Art from Western University and her Bachelors of Fine Art (Honours) from York University. Yoo's art practice investigates first and second generation, Korean-Canadian diaspora identity to contemplate autobiographical memory, the nostalgic present and the duality of place. Her work has been exhibited throughout Ontario at Koffler Gallery (Toronto), John B. Aird Gallery (Toronto), Art Lab Gallery (London), The Art Gallery of Peterborough (Peterborough), and CONTACT Photography Festival (Toronto).

Diana Yoo, From a Convenience Store, 2014-2016. Multimedea Installation
Diana Yoo, Convenience Store Counters Series, 2016. Digital c-print.
Diana Yoo, Tourists in the Division, 2014. Single-channel video, 3 min 54 sec.

Diana Yoo explores her identity as a Korean-Canadian through her installation *From a Convenience Store* and photographic series *Convenience Store Counters*. Like many other Korean immigrants in North America, Yoo's parents owned and worked at convenience stores. As she has relatives in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er search for the root starts at the Demilitarized Zone, although her physical presence is at a Canadian convenience store.

In the installation, she juxtaposes props and a photograph of a convenience counter run by a Korean-Canadian and two films of the DMZ together. The photographic series *Convenience Stores Counters* represent the life of Korean-Canadians, who struggle to settle in Canada by assimilating themselves to the so-called North American character—that is, the abundance of (inexpensive) mass-produced goods.

In her works, no single individual person is visible. Only a sedate voice of a veteran of the Korean War speaks about his memories of the War and life of running a convenience store in Canada. She attempts to bring the spaces of Korean and Canadian together and merge the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ies, and in doing so, creates a hybrid space and time. (Vicky Sung-yeon Kwon)